



다 함께하는 사회구현

# 새보람

## SAEBORAM

Voiceye Saeboram News

소리로 읽는 새보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02)796-4280

www.kappd.or.kr

제257호

2014년 8월

## HEADLINE

뉴스 5P

[기획]장애아동 가족의 돌봄 부담

특집 12P~13P

허울뿐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물 14P

일산직업능력개발원 최병호 원장

국제 18P

의족 착용하고 무대 선 무용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 주차할 곳 없는 장애인들...인식 개선 필요



창고로 전락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일부 운전자들로 인해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뇌병변장애인 A씨는 병원을 가는 날이면 주차공간을 찾아 예약 시간을 놓치기 일쑤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다반사기 때문이다.

지체장애인 B씨는 마트를 찾았다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차를 세워둔 비장애인과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일반 주차구역은 휠체어에 옮겨 탈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사실상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렵다고 재차 설명해봤지만 왜 장애인만 혜택을 받아야 하냐는 날선 대답만 돌아왔다.

지체장애인 C씨는 백화점을 갔다가 각종 물품들이 널려있는 장애

인전용주차구역을 보고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했다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중앙지원센터(센터장 김광환, 이하 편의센터)는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장애인전용주

차구역의 적절 설치 및 불법 주차 여부를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2주 동안 전국 공공기관, 종합병원, 대형마트, 문화·체육 시설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캠페인 활동도 실시했다.

편의센터 홍현근 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합동점검 결과는 8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12~13면에 계속>

## 복지서비스 가이드북 발간

보건복지부가 정부 부처의 복지서비스를 한 권에 담은 가이드북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2014'를 발간했다고 7월 17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국민들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작됐다.

가이드북에는 17개 정부 부처에 흩어져 있는 333개의 복지서비스가 생애주기·상황별로 정리되어 있다.

특히 콜센터를 통해

문의가 많은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 요금 감면 등 50개 복지서비스가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다.

가이드북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또는 복지포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이번에 발간된 가이드북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새보람 매니아를 찾습니다.

혹시 20년전 발행된 오래전 새보람을 가지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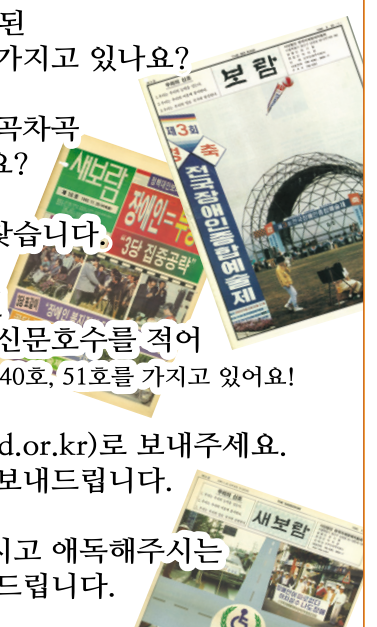
혹시 새보람을 차곡차곡 편철하고 계신가요?

새보람매니아를 찾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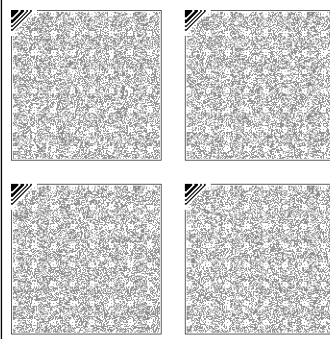
새보람매니아라면 보유하고 계시는 **신문호수**를 적어 (예)저는 10호, 20호~40호, 51호를 가지고 있어요!

이메일(oh@kappd.or.kr)로 보내주세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새보람을 아껴주시고 애독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 복지부 · 여가부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사업 통합

## 여성장애인단체 반발... “두 사업 서로 목적 달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사업이 통합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성장애인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7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2016년까지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교육지원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사업을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유사 · 중복 사회복지사업 통합 폐합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 조정 · 연계 및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 확정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한국여성장애인연합과 장애여성네트워크는 7월 30일 성명서를 내고 이는 여성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각 부처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한데 적게나마 보건복지부와 여



지난해 11월 국회의사당 앞에서 여성장애인 지원예산 증액을 촉구하던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성가족부 두 부처에서 진행되던 사업마저 통폐합 한다는 것은 여성장애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두 사업은 서로 상이한 목적과 근거 법령을 가지고 있으

며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사업 시작 때도 여성장애인의 욕구나 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시행하더니 지금에 와서 또 여성장애인의 의견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각 사업이 본연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고 여성장애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와 교육부의 ‘치료지원서비스’도 2016년부터 하나의 사업으로 합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차별금지모니터링 사업’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사업의 중복 방지를 위해 상호간 사전 협의가 진행된다.

아울러 중앙부처 36개 사회보장사업의 지원내용, 선정기준, 신청방법 등을 안내하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도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민의 편의 제고와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각종 복지사업을 검토하고 조정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관련 부처와 지자체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지시했다.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조정

민간기업 3.1%...국가 · 공공기관 3.4%

오는 2019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민간기업은 현재 2.7%에서 3.1%, 국가 · 자치단체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현재 3.0%에서 3.4%로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8월 14일 이를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 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5년마다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번 법령 개정은 2015년부터 2019년 기준을 재설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의무고용률 상승으로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일자리가 올해 14만9천 200개에서 2019년 18만7796개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 법령안은 장애

인직업생활상담원 선임기준을 상시 장애인근로자 10인 이상 고용에서 20인 이상 고용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매년 1월과 7월 2회 제출하는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접수 업무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창구를 단일화해 신고 편의를 증진했다.

## 한방 비급여 의료비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야 권익위, 관계부처에 보험범위 개선 권고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방 비급여 의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실손 의료보험 한방 비급여 의료비 보장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7월 29일 밝혔다.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질병, 상해로 인한 양방 의료비 실비 중 부인부담액과 비급여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한방의 비급여 진료행위와 처방은 치료목적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로 일절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

한방의료에서 약침과 주나요법은 치료목적이 판단

되는 보편적 행위임에도 진료 표준화 미비 등의 사유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양방병원에 입원할 경우에는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50%를 보장해주지만 한방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경우는 비급여로 분류돼 병실료 차액을 보상해 주지 않는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치료 목적 여부의 판단기준이 명확한 한방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도록 실손 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해서 입원 진료내역서 처방내용에 약재 주성분과 진료행위를 명기하도록 표기 방식을 표준화 했다.

1987년 9월 1일 창간 월간 새보람 제257호 2014년 8월 25일

회 장 · 발행인 / 김광환 편집장 / 오창석 기자 / 김금주 발행처 / (사)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이룸센터 3층

등록번호 / 영등포 라 00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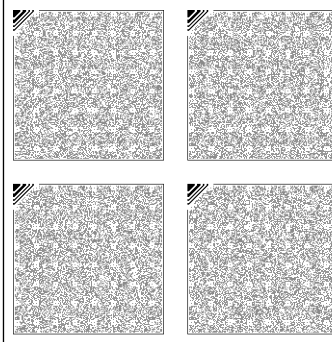
홈페이지 http://www.kappd.or.kr E-mail : kappd@kappd.or.kr

대표전화:(02)796-4280 FAX:(02)796-4281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 향후 5년 사회보장기본계획 확정

## 정책과제 및 시행계획 제시...장애인 정책 포함

##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 · 활동지원 등급제한 폐지

정부가 8월 5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사회보장 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을 정책목표로 두고 있다.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 관련 사항을 살펴보면 이미 추진 중에 있거나 시행이 예고된 내용들이다.

정부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로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과 대상 확대, 장

애인 의무고용 이행 활성화, 맞춤형 장애인 직업훈련 제공 등을 꼽았다.

이 가운데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과 대상 확대는 지난 7월 이미 추진된바 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9만 9100원에서 20만원으로, 대상은 소득하위 63%에서 소득하위 70%로 확대됐다.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 및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고용촉진을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맞춤형 장애인 직업훈련 제공은 장애학생에 대한 기업연수·진로컨설팅·취업지원서비스 지원과 직업훈련·자립생활훈련 강화를 위한 전공과 확충을

통해 풀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과제에는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확대, 교육 및 문화향유 환경 조성,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예방 및 의료 재활강화,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장애종합판정체계 개편은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제공기준으로 활용되는 현행 장애등급제 개선을 위한 것으로 2016년까지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등록 장애인 판정 기준을 보완하고 80여개에 이르는 개별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제공 기준을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필요도 등을 반영한 통합적 판정체제로 대체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확대는 급여 신청자격의 장애등급 제한을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교육 및 문화향유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2017년까지 장애학생도우미를 2천500명에서 3천명,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를 272개소에서 280개소로 확대한다.

아울러 2015년까지 장애인 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하고 공공도서관 장애인 보조기기 확충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도 계획하고 있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전국 시내버스를 단계적으로 저상버스로 교체하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근거 마련과 인증 활성화 방안을

통해 무장애시설도 확대한다.

권역별 재활병원을 강화해 후천적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재활병원기반 사회복지 프로그램 모델과 지역사회기반 주간재활센터 연계 모델을 개발·보급해 의료재활전달체계를 확립해나갈 예정이다.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보건소도 2017년까지 254개소로 확대한다.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인권침해 금지행위 및 학대 신고 의무자를 확대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시설과 종사자에 대한 행정제재 수준을 강화하도록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한다.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의 신속한 발견과 구제를 위한 장애인 보호전문기관 및 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도 추진한다.

## 사 설

## 장애 체험의 허(虛)와 실(實)

지난 7월 서울 모 초등학교의 시험 문제다. 물론 정답은 ①번이 아닐 것이다.

창밖으로 머리카락이나 손가락을 내밀어 보는 장애 체험은 없으니까 말이다.

확인된 바는 없지만 위와 같은 시험문제를 출제한 것을 보면 해당 초등학교 담임교사는 차를 타고 가면서 창밖으로 머리카락이나 손가락을 내밀는 장애 체험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라 추측해 본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위와 같은 문제를 출제할 수 있었을까?

장애 체험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 보장구를 사용해보며 장애인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경험해보고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주로 휠체어나 목발을 사용해 계

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 )?

- ① 창밖으로 머리카락이나 손가락을 내밀어 장애인 체험을 한다.
- ② 큰 소리로 떠들어서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도록 한다.
- ③ 손잡이를 안 잡고 있다가 정차하면 기사님 쪽으로 날아간다.
- ④ 출입문 근처에 서서 내리는 사람들에게 예의바르게 인사를 한다.
- ⑤ 안전 손잡이를 잡고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한다.

서울 모 초등학교의 시험문제.

단·경사로를 이용해 보는 지체장애 체험, 눈을 가리고 흰지팡이·경고(점형)블록·유도(선형)블록을 이용해 보는 시각장애 체험이 일반적이다.

최근 장애 체험 프로그램이 장애인 복지 현장에서는 붓물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점자로 이름을

쓰는 것을 시각장애 체험, 전동휠체어를 조이스틱으로 운전하는 것을 지체장애 체험이라고 한다.

“형식이야 어찌됐든 장애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모두 장애 체험이라고 해도 된다”거나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다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일이지”하는 식의 안일한 행동들이 우리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행동 특성을 다시 배워서 새로운 장애인관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황당한 장애 체험 프로그램이 남발되고 있는 이 상황을 단순히 개인의 열정과 능력에만 방치해 둔다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이다.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대안 중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장애 체험을 추진할 수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공식적으로 장애 체험을 실행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한 후 이수한 자들에게 일정한 자격을 부여해 장애 체험 활동을 실행하게 하는 것이다.

#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이 최대 쟁점

## 수급자 선정 기준 두고 장애계 의견 엇갈려

정부가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연금이 장애계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장애인연금은 의학적인 기준으로 판정된 장애등급에 의해 차등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을 위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권리보장법제정연대 등은 7월 29일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연금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장애등급이 아닌 근로능력을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충북대학교 윤상용 교수는 “각 서비스 유형별로 최적의 대상자를 판별하기 위해 필요한 평가 요소를 확정하고 의학적인 손상 정도를 의미하는 장애등급과 함께 다양한 기능적 능력, 사회환경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급자격 여부와 서비스 제공량을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연금의 경우 의학적인 손상, 소득 및 재산 외에 근로



7월 29일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열린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연금제도 개선 토론회'.

능력을 추가로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학적인 손상 중심의 장애등급제계를 장애가 개인의 노동시장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의미하는 근로능력 중심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교수는 “의학적인 손상 평가만을 통해 노동능력의 심각한 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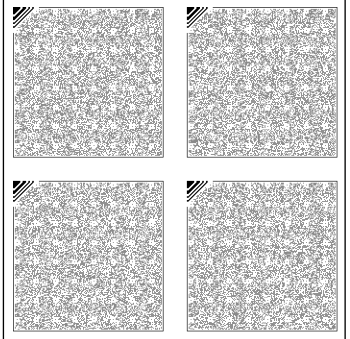
상을 규명하고 있는 현재 장애판정방식은 후진적 방식”이라며 “구체적으로 의학적인 손상 외에 근로능력에 초점을 둔 기능적 평가 요소와 재활가능성 사정 요소가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대학교 조한진 교수는 “장애인연금은 소득보장 정책이

므로 소득과 재산만 보면 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근로능력을 추가로 봐야 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교수는 “장애정도와 소득계층 간 상관관계를 검증해본 결과 장애정도가 중할수록 소득 계층이 낮아졌다”며 “장애인연금을 제공하기 위해 굳이 두

### 소리로 읽는 새보람



가지 요소를 다 평가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소득수준만 보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처장은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제한적인 노동에만 종사하게 되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거나, 다른 사람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제공되는 소득보장 제도”라며 “장애인연금의 수급 여부나 지원 금액 결정 기준은 개인의 소득 여부, 소득이 있을 경우는 현재의 소득수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 주최 측은 보건복지부에 토론회자로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보건복지부는 참석이 힘들다는 답변을 전해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장애인정책과에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는데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자립기반과 소관이라고 해서 장애인자립기반과에 다시 요청을 했더니 휴가라고 말했다”며 보건복지부의 태도에 아쉬운 마음을 내비쳤다.

## 전세집에서 쫓겨난 장애인 목숨 끊어

### 집 경매 넘어가 강제퇴거 당해

세 들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40대 장애인 가정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7월 31일 낮 12시 46분쯤 지체장애인 A씨가 자신이 살던 아파트 1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전세금 2500만원을 주고 아파트에

입주했으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새 주인으로부터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받았다.

이 같은 요구에 A씨는 부인과 9살, 11살인 두 자녀를 데리고 갈 곳이 없다며 버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2급 지체장애인으로 정부보조금으로 생활을 꾸려온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 대법원, 근로 중 의족파손 산재로 인정

### 의족도 신체의 일부...요양급여 지급해야

대법원이 ‘근로 중 의족이 파손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교통사고로 오른쪽 무릎 일부를 잃어 의족을 착용하게 된 절단장애인 양 모씨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지난 2010년 제설작업을 하다 미끄러져 의족이 파손됐다.

양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의족은 신체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 승인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놓을 뿐이었다.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행정법원, 2심 고등법

원 모두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양씨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찾았다. 이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협력기관인 법무법인 (유)태평양에 사건을 의뢰해 3심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원심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의족이 단지 신체를 보조하는 기구가 아닌 신체의 일부인 다리를 기능적, 물리적,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장치로써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의 의족이 파손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된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한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는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 평등지향적인 판결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환영의 뜻을 전하며 “향후 보다 많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근로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 보조기구가 단순한 도구가 아닌 신체의 일부로 인정해준 귀중한 판례”라며 “이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장애 차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

# 장애아동 가족의 돌봄 부담

## 부모들이 만든 긴급 돌봄터 '나무와 열매' 눈길



장애아동 부모들이 직접 나서 만든 긴급 돌봄터 '나무와 열매'.

### 장애아동 부모의 고된 하루

이은성(가명, 43세) 씨는 9살 난 아들 곁을 한시도 떠날 수가 없다.

아들이 1급 중복장애(뇌병변·지적장애)를 갖고 있어 홀로 몸도 가눌 수 없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는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만 이용하고 있다. 서비스 시간은 5시간에 불과하다.

게다가 주말에는 활동보조인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뿐더러 아이가 중증장애다 보니 활동보조인들이 기피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아이가 학교에 가도 이 씨는 쉴 틈이 없다. 일반학교에 다니는 아이의 점심식사를 돕기 위해 학교에 가야하기 때문이다.

중증장애 아이들은 일일이 챙길 것이 많지만 일반학교는 인력이 부족해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장애아 전문 돌봄 기관에 보내

려고 했지만 적은 숫자에 비해 이용하려는 아이들은 많은 탓에 대기 시간이 길어 포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애아동 부모들의 생활은 자유롭지 못하다. 그야말로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낸다.

아빠는 돈 벌기에, 엄마는 아이 돌보기에 올인 할 수 밖에 없다. 맞벌이를 하다가도 한 명은 그만뒀야 하는 상황에 부딪치는 것이다.

연극배우가 꿈이었지만 아이가 장애판정을 받은 이후 연극을 그만뒀다고 털어놓는 이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이의 장애도 속상했지만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됐다는 상실감에 괴로웠으며 장애아동 부모들이 힘든 부분 중 하나가 자아실현이라고 토로했다.

장애아동 부모들은 마음 놓고 아플 수도 없다. 이 씨는 죽을 만큼 아프지 않으면 병원에 가지 않는다.

평소 천척들의 경조사를 챙기거나 취미생활을 즐기는 일은 생

각도 할 수 없다.

해야 할 일도 마음 놓고 할 수 없어 하고 싶은 일은 꿈도 못 꾸는 것이 장애아동 부모들의 현실이다.

### 돌봄 지원 장애아동 고작 4%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해 실시한 '장애아동 및 가족 실태조사' 보고서는 이 씨와 같은 장애아동 부모들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조사결과 장애아동의 주 양육자는 어머니가 91.2%로 돌봄 시간은 일일 평균 12시간, 주말이나 공휴일은 18시간으로 나타났다.

아이를 돌보느라 하지 못한 일은 가족들의 병원 치료나 간병이 가장 많았다.

또한 아이 양육으로 인해 느끼는 부모들의 부담은 5점 만점에 3.45점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부담이 가장 높았고 경제적 부담, 신체적 부담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지원 제도는 부모들을 더욱 한숨짓게 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아동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장애아 가정을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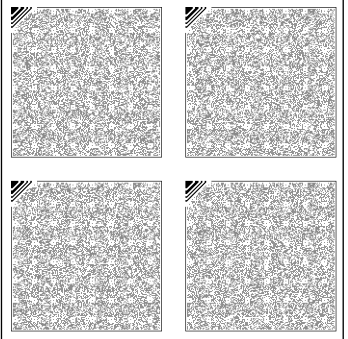
하지만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만 18세 미만 1~3급 중증장애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8월 초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아동은 3천명.

전국 등록 장애아동이 7만6천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약 4%만이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는 꼴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아동 및 가족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이 중증장애 아동을 둔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과 가족 안정성을

### 소리로 읽는 새보람



목적으로 한다면 재산자격기준의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중증장애아동 가족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부모가 직접 만든 돌봄터

장애아동 부모들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부모들이 직접 만든 돌봄터가 눈길을 끈다.

서울시 성북구 길음역에 위치한 '나무와 열매'. 이곳은 장애아동 부모 8명이 모여 만든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급한 일이 생겨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맡길 수 있는 전국 최초 장애아동 긴급 돌봄 기관이다.

2012년 장애아동 부모들이 서로 고민을 나누다 장애아동 공동 돌봄터를 만들어보자는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성북구가 주관한 성북 협동조합 마을학교 프로그램을 수료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적 협동조합 인증을 받아 공간 임대 보증금과 사업비 등을 지원 받고 지난 4월 개소하기에 이르렀다.

'나무와 열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예약을 하면 주말에도 개방된다.

그러나 최대 이용시간은 4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좀 더 많은 장애아동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또한 현재는 공간과 운영비 등의 문제로 중학생까지만 받고 있지만 앞으로 그 대상을 고등학생, 성인까지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나무와 열매' 장용빈 이사는 "장애아동 지원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활동보조인이 아파서 못 나오거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면 장애아동 부모들은 아이를 마땅히 맡길 곳이 없다"며 "이럴 때 '나무와 열매'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장애인 폭행 시설 사무국장 검찰 고발

## 생활교사도 장애인 때려 징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이하 인권위)가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장애인거주시설 사무국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장애인을 체벌한 생활교사를 징계할 것을 해당 시설 측에 권고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3건의 진정을 접수받고 조사에 나섰다.

조사결과 해당 시설 사무국장 A씨는 뇌병변장애인 B씨가 여성장애인의 방을 자주 출입했다는 이유로 그의 머리와 얼굴 등을 슬리퍼로 20~30분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폭행 당시 수습직원들 앞에서 “장애인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한 사람을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시설 생활교사 C씨

도 장애인을 폭행해 몸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피해를 입혔다.

인권위는 “사무국장 A씨의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과 제4항에 위반되는 폭력과 학대 행위로서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에 해당되는 한편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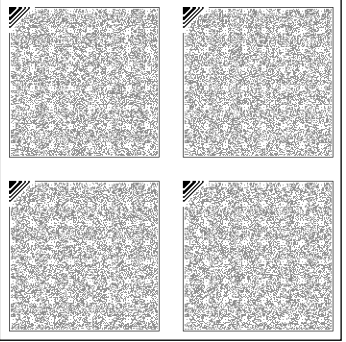
이어 “해당 시설 생활교사 C씨의 행동은 장애인시설 생활교

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에 벗어날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1항과 제4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시설에서는 2013년 이후 수차례 폭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적극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고 폭행 사건 전후 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이 단 한 차례도 소집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지역 도지

### 소리로 읽는 새보람



사에게 철저한 지도감독을 권고하고 군수에게는 지도점검 항목에 인권 부문을 추가할 것을 주문했다.

해당 시설장에게는 인권지킴이단 재구성을 포함한 인권침해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9월 개관 예정인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 시립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 9월 개관

### 재건축 완료...무장애 공간으로 설계

서울시는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공사를 마치고 9월 개관식을 갖는다고 8월 5일 밝혔다.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22년 전에 건설돼 2000년부터 네 차례에 걸친 보강공사가 이루어졌으나 2011년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붕괴위험 시설물 판정을 받아 철거 후 다시 재건축

됐다.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시각장애인들의 자활을 위한 음악치료실, 기초재활실, 화면해설스튜디오, 녹음부스 등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

또한 장애인들이 모든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공간으로 설계됐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늘어나는 다양한 복지 수요에 발맞춰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이 쾌적하고 안정된 복지시설로 거듭났다”며 “시각장애인들이 최적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자활 및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애인 복지 분야에 종사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한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평등’의 사전적 의미는 ‘권리, 의무, 자격 등에서 차별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인종, 성별, 신분, 장애와 상관없이 모두가 같은 조건에서 같은 기회를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즉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비장애인과 다른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사회에는 예나 지금이나 장애인 차별이 존재한다.

보통 우리는 교육권, 이동권, 건강권, 문화접근권 등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해 발생하는 장애인 차별 사례를 많이 접하는데 장애인들은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 또 다른 차별에 직면하기도 한다.

비장애인이라면 화제가 되지 않을 일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세간의 주목을 받거나, 비장애인이라면 용인될 수 없는 잘못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용인되는 경우도 장애인 차별이 아닐까.

지체장애 학생이 시험을 잘 봤다거나 주어진 과제를 잘 수행했을 때 장애가 그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에도 장애를 극복하고 훌륭하게 해냈다는 식의 칭찬,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싸웠는데 정확한 잘못을 따지지 않고 비장애 학생에게 몸이 불편한 친구를 도와주는 못활망정 싸웠냐는 식의 꾸중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장애가 특별히 칭찬 받거나 특별히 용서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과거 우리사회에 지배적이던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동정적 시선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차별의 벽은 높기만 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는 장애의 유무를 떠나 잘한 일에는 지지를 보내고 잘못된 일에는 채찍질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도장애인의 경우를 제외하

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100% 이해할 수는 없다.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받아들이는 입장과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보통 지지를 보내는 경우는 서로가 어려운 일이 별로 없지만 잘못된 일에 대해 비판하는 경우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는 위에서 언급했듯 ‘장애’라는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차이는 인정하고 차별하지 않는 것이 평등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시

### 칼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기획행정부 허두행

## 차별 없는 소통을 위해...



간이 걸리더라도 함께 소통하고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아량을 갖춰 서로에 대한 지지와 비판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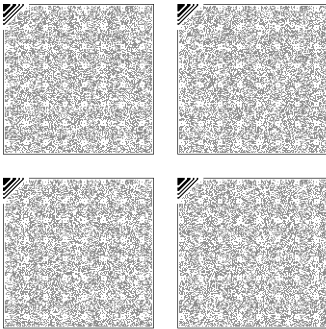
혹자는 이 이야기가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상을 향해 노력하면 하지 않고 있을 때보다는 분명히 좋은 변화가 생길 것이라 믿는다.

지금보다 더 평등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해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때이다.

Voiceye Saeboram News

소리로 읽는 새보람



# 광주 지역 장애인 힐링체험 나서

## ‘제10회 지체장애인여름바다체험대회’



‘제10회 지체장애인여름바다체험대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이재홍, 이하 광주지장협)가 ‘힐링체험’을 주제로 7월 24일 전북 고창 구시포 해수욕장에서 ‘지체장애인여름바다체험대회’를 열었다.

광주 지역 지체장애인 430여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물놀이, 피구게임, 보물찾기, 노래자랑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은 7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지체장애인들의 프로그램 참여를 도왔다.

대회에 참가한 한 장애인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광주지장협 이재홍 협회장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바닷가를 찾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한 ‘지체장애인여름바다체험대회’가 장애인들에게 삶의 활력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는 광주광역시, 대한적십자사 북구지구 솔잎봉사회,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 무등LC, 충장LC, 광주여성LC, 청솔여성LC, 서광LC, 광주하이원LC, 광주엔젤LC 등이 후원했다.

## 경기지장협 군포시지회, 삼계탕 나눔 행사 열어 “회원과 동행하는 지회 만들어 나갈 것”



경기지장협 군포시지회가 8월 7일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군포시지회(지회장 이광현, 이하 경기지장협 군포시지회)가 8월 7일 말복을 맞아 삼계탕 나눔 행

사를 가졌다. 경기지장협 군포시지회는 회원 100여명에게 삼계탕을 대접하고 회원 간 친목을 다지는 시

간을 마련했다.

이날은 (주)오텍 임직원과 김동별 김포시의회 의장, 이견행·성복임·홍경호 의원 등이 자원봉사자로 나섰다.

경기지장협 군포시지회 이광현 지회장은 “앞으로 삼계탕 나눔 행사 뿐만 아니라 회원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회원들과 동행하는 지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지회장은 지난 4월 취임식에서 지역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 전북지장협 완주군지회 콜택시 4대 운영



완주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개소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 완주군지회(지회장 정진우, 이하 전북지장협 완주군지회)가 완주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수탁기관으로 선정돼 8월부터 장애인 콜택시 4대를 운영하고 있다.

콜택시 이용은 1~2급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요금은 일반택시의 50% 수준이다.

콜택시는 이용 하루 전까지 전화(☎063-261-7719)로 예약하면 된다.

전북지장협 완주군지회 관계자는 “수익성 보다는 장애인을 가족처럼 모신다는 마음으로 콜택시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1억6천만 원을 들여 장애인 콜택시 4대를 구입했다.

## 구리 장애인 의료비 감면 혜택

### 경기지장협 구리시지회 · 오케이참병원, MOU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구리시지회(지회장 박해일, 이하 경기지장협 구리시지회)가 8월 5일 오케이참병원(원장 박종일)과 지역 장애인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오케이참

병원은 경기지장협 구리시지회 회원에게 10%, 가족에게는 5%의 의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경기지장협 구리시지회 박해일 지회장은 “우리 회원들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준 오케이참병원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오케이참병원 박종일 원장은 “앞으로 지역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여성장애인이 당당한 사회 만들어요”

## ‘2014년 지체장애인여성자립실천대회’ 개최



지체장애인여성자립실천대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경주시지회 여성자립지원센터(센터장 이상인, 이하 경주여성자립지원센터)는 7월 10일 경주 목화예식장에서 ‘지체장애인여성자립실천대회’를 열었다.

경주여성자립지원센터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여성장애인들의 화합 도모

를 위해 매년 ‘지체장애인여성자립실천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서는 ‘여성장애인 인권과 권리 찾기’를 주제로 한 강의를 진행됐다.

경주여성자립지원센터 이상인 센터장은 “이번 대회가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여성장애인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회를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경주시지회 회원을 비롯한 경주시·경주시의회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 편의시설대구센터·대구도시철도공사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위한 MOU 체결



지체장애인편의시설대구지원센터 김창환 센터장과 대구도시철도공사 시설사업소 김대현 소장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대구지원센터(센터장 김창환, 편의센터)가 8월 12일 대구도시철도공사 시설사업소(소장 김대현, 이하 사업소)와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두 기관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대구 지역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힘써나갈 것을 약속했다.

편의센터 김창환 센터장은 “사업소의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자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소 김대현 소장은 “편의센터의 대구도시철도역사 내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요청을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포항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 경북지장협 포항시지회, 방문 서비스 실시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이하 경북지장협 포항시지회)가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다.

경북지장협 포항시지회는 국제로타리 3630지구 포항해맞이로타리클럽 회원 20여명과 중증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실내·외 환경 정비 활동을 펼쳤다.

경북지장협 포항시지회는 “더운 날씨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봉

사활동에 참여한 국제로타리 3630지구 포항해맞이로타리클럽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로타리 3630지구 포항해맞이로타리클럽은 경북지장협 포항시지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힘을 쏟을 것을 약속한 바 있다.



포항해맞이로타리클럽 회원들이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다.

## 경북지장협 영덕군지회, 복지사각지대 발굴

### 복지 서비스 신청 및 주거환경 개선 도와



경북지장협 영덕군지회 직원이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벌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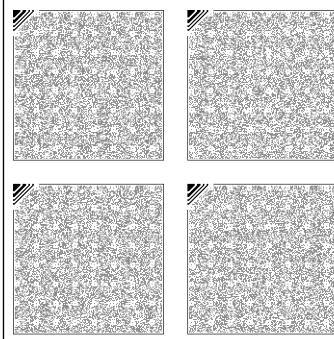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영덕군지회(지회장 김대환, 이하 경북지장협 영덕군지회)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발굴에 나섰다.

경북지장협 영덕군지회는 최근 홀로 어렵게 살아가는 장애인이 있다는 지역 주민의 제보를 받았다.

이에 해당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장애인 등록, 활동지원 등 장애인 복지 서비스 신청을 돕고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펼쳤다.

경북지장협 영덕군지회는 앞으로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방침이다.

## 소리로 읽는 새보람



# 북부장복, 장애인 위한 사랑 실천

##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 우비 지원



북부장복은 7월 18일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에게 우비를 전달했다.

서울시립북부장래인종합복지관(관장 손영호, 이하 북부장복)이 7월 18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비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은 비 오는 날 외부 활동에 불편이 많다. 이에 북부장복은 장마를 앞두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 200여명에게 휠체어용 우비를 지원했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한 장애인은 “비 오는 날은 외출을 할 수 없어 집에만 머물러야 했는데 휠체어용 우비를 지원받아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북부장복 손영호 관장은 “지역 장애인들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우비나눔 행사는 바자회를 통해 모인 수익금과 복지관 후원금으로 진행됐다.

# 초록어린이집, 장애아동 여름캠프 개최

## 수박축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

장애 아동 전문 교육기관인 초록어린이집(원장 이경자)이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여름캠프를 진행했다.

초록어린이집은 매년 7월 장애아동의 알차고 건강한 여름을 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

성된 여름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여름캠프는 ‘우산꾸미기’, ‘맛있는 빙수 만들기’, ‘수박축제’로 꾸며졌다.

특히 ‘수박축제’는 직접 수박을 만져보고 느껴볼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돼 장애아동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초록어린이집 이경자 원장은 “앞으로 여름캠프 외에도 장애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여름캠프 참가 아동들이 수박축제를 즐기고 있다.

# 괴산장복, 무료급식 행사 열어

개관 1주년...160여명에 삼계탕 제공



괴산장복이 개관 1주년을 맞아 7월 25일 삼계탕 무료급식 행사를 열었다.

괴산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정효선, 이하 괴산장복)이 개관 1주년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7월 25일 복지관 이용고객과 주민 160여명을 대상으로 삼계탕 무료급식 행사를 열었다.

이날 무료급식 행사는 주성마트, 늘푸른식품에서 후

원했으며 대한적십자봉사회 회원과 자원봉사자 10여명이 식사지원에 나섰다.

괴산장복 정효선 관장은 “개관 이후 지난 1년 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관 이용고객과 주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 영천 장애·비장애아동 통합캠프

‘우리 함께 꿈꾸는 세상’...자연체험학습



캠프 참가 아동들이 함께 그린 협동화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제근, 이하 영천장복)이 8월 7일부터 8일까지 청도 성수월마루로 장애·비장애 아동 20여명과 통합캠프를 다녀왔다.

‘우리 함께 꿈꾸는 세상’을 주제로 한 이번 캠프는 숲, 나무, 동·식물을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자연체험학습 시간으로 마련됐다.

또한 아이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요리, 협동화 그리기 활동도 진행됐다.

한편 영천장복은 장애아동과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아동의 사회성 증진을 위해 매년 여름방학 기간에 맞춰 1박 2일 일정으로 장애·비장애아동 통합 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 용인장복,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에 앞장

## ‘장애인집합정보화교육’ 실시...수강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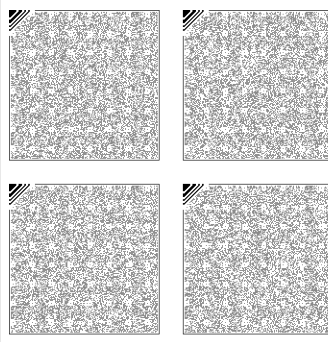
용인장복 정의철 관장이 상반기 장애인집합정보화교육 수료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용인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정의철, 이하 용인장복)이 장애인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용인장복은 지난 2009년부터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지역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장애인집합정보화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 용인장복은 3월부터 컴퓨터 기초, 파워포인트, 멀티미디어, 스마트폰 이용법, 스마트한 생활을 위한 대한민국 전자정부 등 상반기 교육을 실시하고 7월 27일 수료식을 가졌다.

### 소리로 읽는 새보람



하반기에는 컴퓨터, 포토샵 CS, 멀티미디어, ITQ자격증, 뉴미디어정복, 스마트폰 이용법 교육이 실시된다.

하반기 교육 수강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용인장복(☎ 031-320-480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용인장복 교육생은 지난 6월 열린 ‘2014 국민행복IT경진대회’에서 지역예선 성적우수자 표창을 받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 성남장복,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 (주)삼성테크원이 후원...전시회 · 연극 관람

성남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상구, 이하 성남장복)은 7월 16일 중증장애인들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즐거운 나의 하루’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성남장복은 중증장애인 10명

과 서울 예술의 전당을 찾아 ‘히말라야 14좌 사진전’, ‘폴리처상 사진전’, 연극 ‘가을 반딧불이’를 관람했다.

성남장복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평소 나들이 기회가 적

은 장애인들이 사진전과 연극을 관람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삼성테크원의 후원과 자원봉사로 진행됐다.



‘즐거운 나의 하루’ 프로그램 참가자와 (주)삼성테크원 임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김천장복 가족무용 프로그램 실시

### ‘Good Family’ ...예술감각 및 가족기능 향상



김천장복의 ‘가족무용 Good Family’ 프로그램.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선하, 이하 김천장복)은 8월 4일 ‘가족무용 Good Family’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가족무용 Good Family’는 장애인의 잠재된 예술 감각과 가

족기능 향상을 위해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8월 14일까지 총 8회에 걸쳐 버디댄스, 신체화 그리기, 가족과 소통하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됐다.

## 남부장복의 ‘느끼GO, 나누GO’

### 장애 · 비장애청소년 통합캠프

충청남도남부장래인종합복지관(관장 임대혁, 이하 남부장복)이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부여군 청소년수련원에서 장애 · 비장애청소년 통합캠프를 실시한다.

‘느끼GO, 나누GO’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통합캠프는 명랑운동회, 축구, 장기자랑으로 진행된다.

또한 서동요세트장을 관람하는 문화체험 시간도 마련된다.

남부장복은 프로그램 참여 전 비장애청소년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남부장복 관계자는 “이번



남부장복이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장애 · 비장애청소년 통합캠프를 실시한다. (사진 : 지난해 통합캠프)

통합캠프가 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의 소통은 물론 공동체 의식 함양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충남 지역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

를 바란다”고 밝혔다.

통합캠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부장복 사회재활팀(☎ 041-856-7071)으로 문의하면 된다.



# 개관 10주년 맞은 의정부장복

## ‘나눔잔치’ 통해 감사의 마음 전해



의정부장복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7월 17일 개최한 ‘나눔잔치’에서 바자회가 열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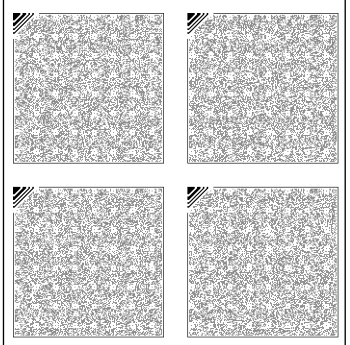
의정부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인숙, 이하 의정부장복)은 7월 17일 개관 10주년을 맞아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의정부장복은 지난 10년 동안 복지관에 많은 성원을 보내준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7월 17일 ‘나눔잔치’를 열었다.

이날은 복지관 이용고객, 자원봉사자, 후원자,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자회, 무료 급식 행사가 진행됐다.

또한 의정부장복 바리스타 훈련생들이 참여한 차나눔행사도

### 소리로 읽는 새보람



열려 눈길을 끌었다.

의정부장복 김인숙 관장은 “지금껏 그래왔듯 열심히 지역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복지관이 되겠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의정부장복은 오는 9월 10주년 기념식과 예술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 아산장복, ‘한우리캠프’ 실시

## 성인 지적장애인 사회성 향상에 기여

아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이창호, 이하 아산장복)은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복지관 보호작업훈련실 이용자를 대상으로 충북제천 일대에서 ‘한우리캠프’를 실시했다.

‘한우리캠프’는 새로운 환경에서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 성인

지적장애인들에게 타인에 대한 배려와 단체생활에 대한 이해를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올해 10회를 맞았다.

이번 ‘한우리캠프’는 모노레일 타기, 아쿠아리움·청풍문화재단지 관람, 요리대회, 장기자랑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됐다.

아산장복 이창호 관장은 “캠프가 성인 지적장애인들의 사회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산장복 ‘한우리캠프’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문경장복, 장애인 가정에 영양식 전달



문경장복 임직원들이 장애인 가정에 전달할 삼계탕을 준비하고 있다.

문경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박종훈, 이하 문경장복)이 장애인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나섰다.

문경장복은 중복을 맞아 7월 26일 밑반찬 지원 대상 가정을 방문해 삼계탕을 전달했다.

이날 삼계탕 전달에는 문경시

이상진·김창기 시의원이 함께 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문경장복은 관음공덕회(회장 이점숙)와 지역 장애인을 대상으로 밑반찬 지원 사업, 말벗서비스 등을 실시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 달성장복, 이용고객 인권교육 실시

## 인권의 이해 및 인권의식 함양 강의



달성장복 이용고객과 직원들이 인권교육을 받고 있다.

달성군장애인복지관(관장 정우선, 이하 달성장복)은 7월 22일 복지관 이용고객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영남사이버대학교 임은자 교수가 ‘인권의 이해 및 인권 의식 함양’을 주제로 강의했다.

한편 달성장복 정우선 관장

은 “복지관 이용고객들을 비롯한 직원 모두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실천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 허울뿐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미흡한 관리 · 불법 주차 · 표지 위조 ‘눈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것 이지만 정작 장애인 당사자들에게는 무용지물일 때가 많다.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사례 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와 관리가 미흡한 경우도 많았다. 특히 이러한 사례는 민간건물 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건물에서도 종종 볼 수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시 적발된 사례를 살펴봤다.

### ■ 허술한 설치 및 관리

#### - 불규칙한 바닥 표면



부산 모 경찰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규칙한 바닥 표면.

바닥이 울퉁불퉁한 돌로 되어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었다.

고르지 못한 바닥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하차한 후 이동하는데 불편할 뿐만 아니라 휠체어 바퀴가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

이는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을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에 위반된다.

#### - 인식 어려운 주차구역 선

편의증진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장애인전용 표시를 해야 하고 주차구역 선 또는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관은 관리를 잘 하지 않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이 지워져 있었다.

또한 장애인주차구역 안내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운전자가 차 안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지워져 있는 서울 은평구 모 도서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

#### - 부적정한 주차구역 크기



일반 주차장 크기로 설치된 서울 송파구 모 상가 장애인주차구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가로길이는 일반주차장 2.3m 보다 1m 넓은 3.3m로 설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매우 불편하다.

그러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일반 주차장 크기와 동일하게 설치하고 바닥에 접근성 표지만 그려놓은 곳이 있었다.

#### - 주차방해



서울 성북구 모 도서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자전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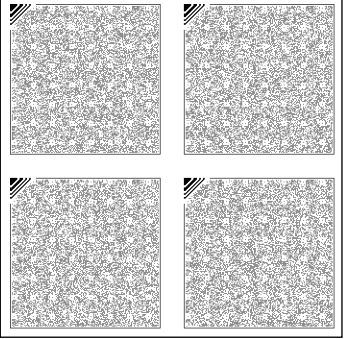
부산 북구 모 도서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조립식 컨테이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곳도 많았다.

일부 건물 관리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 빈도가 낮다는 이유로 각종 물건을 적치하거나 비장애인 차량, 자전거 등을 주차하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



## 소리로 읽는 새보람



## ■ 부정 주차 및 표지 사용

- 주차불가 표지 차량



경기도 구리 모 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주차불가' 표지 부착 차량.

- 표지 정보 은폐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차량 번호를 가린 차량.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주차불가' 문구를 가린 차량.

- 표지 위·변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변조한 차량.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위조한 차량.

장애인자동차표지에는 '주차가능' 표지와 '주차불가' 표지가 있다.

두 표지의 형태는 비슷하지만 색상이 다른데 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이를 악용해 일부 양치 운전자들은 '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했음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차가능' 표지와 '주차불가' 표지의 차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또는 '주차불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자동차표지 전체가 보여야 한다.

그러나 확인이 불가능하도록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일부 정보를 고의로 가린 운전자도 많았다.

타인 명의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사용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장애인자동차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차량 번호를 가려 놓거나 '주차불가' 표지를 부착했음에도 '주차불가' 문구를 가리고 불법 주차한 사례도 여럿 적발됐다.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위조 또는 변조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표준형과 다른 경우 원거리에서 식별이 힘들지만 조금만 유심히 보면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진짜 장애인자동차표지와 똑같은 형태로 위조되는 것들은 현장단속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조회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 최병호 원장

##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인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 개발원은 매년 수료생들의 높은 취업률로 주목받고 있다.

본원은 체계적·단계적 직무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의료·심리·사회 영역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실력은 물론 건전한 인성을 갖춘 사회인 양성에 힘쓰고 있다.

최병호 원장을 만나 본원의 운영 프로그램과 향후 계획, 장애인 직업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일산직업능력개발원장 최병호입니다. 일산 직업능력개발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산하기관으로 장애인의 직업훈련과 직업재활을 위해 1991년 국내 최초로 설립된 장애인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입니다.

‘First & Best’라는 비전과 ‘장애인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곳’이라는 목표로 경쟁력 있는 전문 기능인 양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직무전공 교육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장애인 직업 교육기관입니다.

**Q. 일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A. 일산직업능력개발원의 프로그램은 크게 일반훈련, 맞춤훈련, 기타 보조훈련 과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훈련 과정은 양성훈련과 특성화훈련으로 구분됩니다.

양성훈련은 컴퓨터응용기계·전자·정보기술·디자인·인쇄출판미디어·귀금속공예·IT융합 과정, 특성화훈련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웹 접근성·청각장애인을 위한 CAD/CAM 및 네일아트, 지적장애인을 위한 실무 작업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춤훈련은 각 기업에서 특정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 최병호 원장.

교육을 통해 해당 기업에 바로 취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으로 취업과 고용에 있어 꽤 안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보조프로그램으로 훈련생 건강관리·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중증장애인 직무체험 및 직업훈련준비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지난 4월 취임 당시 ‘장애인들에게 최적의 직업교육을 제공하겠다’는 포부를 밝히셨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A. 장애인에 대한 직업교육은 다양한 장애유형으로 인해 일반적인 집체식 직업교육으로는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직무 교육 방법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직무성격과 장애유형, 개인별 능력 등 세 가지 요소에 대한 매트릭스를 통한 적절한 교육 훈련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도제식 교육과 집체식 교육이 적절하게 혼용되어야 할 것이고 학습 수준에 따라 반편성과 교육기간을 달리할 필요가 있으며 직무 적응도에 따라 전공 변경 등도 용이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교육 환경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설물 관리에 신경 쓰고 있지만 지어진지 25년 정도 되다 보니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현대식 강의실 확충과 생활관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훈련생들의 건강한 심신 상태를 유지하는 일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현재 양호교사, 물리치료교사, 정신보건교사 등이 상주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작업치료사도 상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싶습니다.

한국경진학교, 고양시재활센터와 협력해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직업교육을 실시하기도 했지만 솔직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보다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Q. 일산직업능력개발원 수료생들의 취업 현황은 어떻습니까?**

A. 직업훈련기관의 정량적 목

표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목표는 취업률과 고용유지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률이 가장 높다는 한국폴리텍대학의 2012년도 평균 취업률이 82.3%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 일산직업능력개발원은 전년도 88.02%의 취업률을 달성했습니다.

취업하는 수료생의 상당수가 삼성전자 등 대기업을 포함해 양질의 취업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 1년 이상 고용유지율도 전년도의 경우 72.52%를 나타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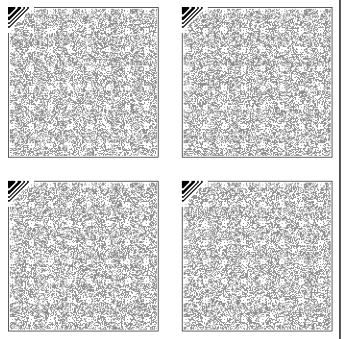
이는 수료 이후에도 2년 동안의 사후 지도를 통해 이직을 예방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한편 퇴사한 훈련생의 재취업을 위해 힘쓰고 있는 우리 교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Q. 장애인 직업교육 또는 장애인 고용을 위해 각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A. 첫째로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복지 정책을 보면 아직도 보호 수준에 그치고 있고

소리로 읽는 새보람



장애인 직업 교육도 시행하는 곳마다 다르다 보니 양질의 취업, 양질의 고용시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결집된 정부기관인 컨트롤타워가 있어 통일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기업에서도 신뢰를 갖고 장애인 고용에 더 앞장설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로 장애인 직업교육 방법, 일종의 교수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사실 장애인 직업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교사는 제도조차 없습니다. 직무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장애인 직업교육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유형과 직무 적응성에 대한 연구와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 입니다.

장애인 고용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Take-care’로부터 출발하면 안 됩니다. 장애인의 ‘Self-business’ 이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을 통해 돈이 되고 이윤이 될 수 있는 기업환경 구축의 틀 안에서 장애인 고용 문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접근 방식에 의한 직업교육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장애인 직업교육이 완성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일산 직업능력개발원 자체적으로는 풀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와 장애인 단체 모두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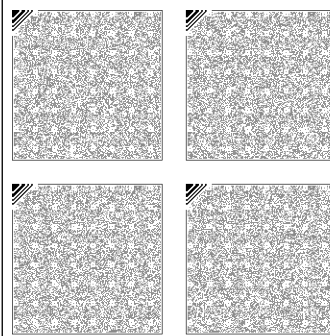
**Q.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장애인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위하여 도전하십시오. 그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일산직업능력개발원의 모든 교직원들이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모두가 당당하게 꿈을 펼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 압박에 의해 발생하는 욕창

## 자세 변화 및 적정 온도 유지 필요

### ■ 장시간 압박이 욕창 유발

욕창은 인체의 특정 부위 중 흔히 뼈 돌출 부위에 해당하는 부분에 장시간의 압력으로 인해 허혈, 세포괴사, 조직괴사로 인한 궤양을 말한다.

욕창은 누워있는 환자에게서 많이 발생하는데 장시간 피부가 압박을 받아 발생하기 때문에 압박궤양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누워있지 않는 환자에게도 생길 수 있다.

욕창은 압력이 셀수록, 노출 시간이 길수록 더 잘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강한 압력이 1~2시간 지속될 때 발생한다.

또한 비스듬히 앉아있을 때 피부가 밀려 내려가면서 가해지는 힘인 응전력, 피부와 평행으로 작용하는 힘인 마찰력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장시간 누워있거나 앉아있어야 하는 경우 욕창이 생기기 쉬운데 뇌졸중·뇌손상·노환으로 감각이 저하되고 운동제한이 있는 사람, 척수 손상 등으로 압박에 대한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된다.

보통 사람들은 수면시간에도 압박 통증이 있으면 몸을 뒤척여 압력을 분산시키지만 뇌졸중이나 뇌신경 손상, 척수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 감각이 없고 기동할 수도 없기 때문에 같은 부위에 압박이 가해져 욕창이 더 잘 발생하게 된다.

마르고 순환장애, 영양장애, 배설장애가 있어 피부에 압박과 자극이 가기 쉬운 사람들에게서도 욕창이 발생할 수 있다.

피부가 습한 상태이거나 높은 체온(일반적으로 정상체온 보다 3도 이상 높을 때)에서 압력이 가해지면 욕창이 더 잘 발생된다.

실온보다 낮은 온도에 노출될 경우에도 혈액순환 장애로 욕창이 발생하기도 한다.

욕창이 발생하기 쉬운 부위는 압력이 많이 가해지는 부위로 넓거나 앉았을 때 피부가 닿는 부위이다.

특히 누운 자세에서는 두부후면, 견갑골, 팔꿈치, 천골, 발꿈치에서 흔히 발생하고 옆드려 누운 자세에서는



뺨과 귀, 무릎, 발가락에서 흔히 발생된다.

여성인 경우는 유방에서, 남성인 경우에는 생식기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는 두부 옆면, 귀, 어깨, 좌골, 대전자, 무릎, 복사뼈 등에 잘 생긴다.

특히 누워있는 환자에서는 천골부에 욕창이 잘 발생하지만 휠체어를 사용하는 하반신마비 환자에서는 좌골부에 욕창이 잘 발생하므로 이 부위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 ■ 욕창 관리의 이렇게

욕창은 욕창과 비슷한 형태인 동맥 허혈성 궤양, 정맥울혈성 궤양, 당뇨병성 족부 궤양, 봉와직염 등과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 치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피부에 평소 보지 못했던 상처나 피부변화가 생겼다면 병원진료를 통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

겠지만 경한 욕창의 경우 상처관리만으로 좋아질 수 있지만 중증의 욕창의 경우 수술까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욕창의 예방과 조기치료가 중요하다.

특히 압박을 분산시키는 것은 예방 및 치료에 있어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의 위치를 자주 바꿔 조직에 지속적인 가거나 반복적인 압박을 피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의식이 없거나 기동할 수 없는 환자는 같은 자세로 2시간 이상 두어서는 안되며 1~2시간마다 환자 위치를 바꿔주고 누운 자세에서 옆으로나 옆드린 자세로 수시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몸에 집중적으로 압박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압력이 집중되는 곳에 스펀지나 베개를 고여 압박을 분산시켜 줄 수 있다.

휠체어에 앉아있을 때에는 30분 이상 같은 자세로 앉아있으면 안되며 감각이 없다면 의식적으로라도 30분마다 신체를 들어주는 운동을 해야 한다.

딱딱한 바닥이나 침대보다는 충분한 쿠션이 있는 것이 좋으며 특히 환

부를 충분한 두께의 부드러운 것으로 감싸주어야 한다.

물침대나 공기부양침대도 압력 분산 효과로 사용되는데 습하지 않아야 하며 적당한 온도로 유지시켜줘야 욕창발생을 줄일 수 있다.

침구는 피부와 마찰을 피해야 하며 폴리우레탄과 같은 합성섬유가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언급한 사항을 잘 따르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욕창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포항남구보건소  
공중보건의 **장은호**

#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미달성 사업자 37.9%

## ‘2013년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결과’ 공개

지난해 장애인방송 의무제공 사업자 153개사 가운데 37.9%에 해당하는 58개사가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3년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결과를 8월 7일 공개했다.

장애인방송 제공실적 평가는 지난 2011년 7월 방송법 개정으로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장애인방송 의무제공 사업자는 자막, 수화통역, 화면해설을 제공해야 한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지상파방

송 50개사 중 울산MBC·광주MBC 등 지역 MBC 2개사와 대구방송·대전방송·청주방송·강원민방 등 지역민방 4개사가 편성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종합유선방송은 75개사 중 (주)씨제이 헬로비전·남인천방송(주)·(주)한국케이블TV 제주방송 등 39개사, 채널사용사업자는 21개사 중 (유)SBS스포츠·(주)엠비씨스포츠·씨제이이엔엠(주) 등 11개사가 편성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평가가 장애인방송 의무 사업자 전체

를 대상으로 한 첫 평가임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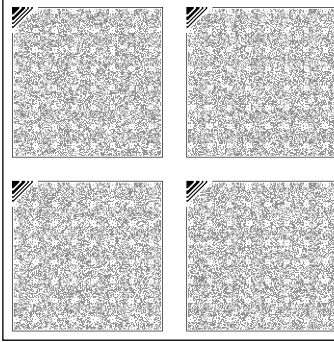
또한 의무불이행 사업자에 대해 위반 내용과 2014년 장애인방송 의무의 충실한 이행, 불이행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법령상 제재조치를 엄격히 취할 계획임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 의무제공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목표 불이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장애인방송 제작비 차등 지원, 장애인방송 제공실적의 방송에 대

한 평가 반영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평가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 방송사가 제출한 실적자료에

### 소리로 읽는 새보람



대한 서면평가와 제출자료 검증을 위한 모니터링 평가로 이루어졌다.

(단위 : 개사)

구 분		의무사업자	달성	미달성	달성율
필수 지정 사업자 (57개사)	중앙지상파	4	4	—	100.0%
	지역지상파	46	40	6	87.0%
	위성방송	1	1	—	100.0%
	종편핵심 PP	6	4	2	66.7%
	소계	57	49	8	86.0%
고시 의무 사업자 (96개사)	SO	75	36	39	48.0%
	PP	21	10	11	47.6%
	소계	96	46	50	47.9%
총계		153	95	58	62.1%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평가결과.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장애인 예술 지원

### 한국장애예술인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한국장애예술인협회가 7월 18일 장애인 예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예술인 작품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는 등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김태

형 사장은 “예술이야말로 장애, 비장애 구분이 필요 없는 분야로 장애예술인들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번 협약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회장은 “장애예술인 보호를 위해 장애인문화예술 공공쿼터제 도입을 꾸준히 제

안해 왔지만 매년 거절당했는데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장애예술인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문을 열어줬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문화예술 공공쿼터제는 모든 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일정 비율로 정해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 국립전통예술계학교 장애인 특별전형 도입

국립전통예술계학교에 장애인 특별전형이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전통예술계학교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정원 외 인원으로 추가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2015년 국립전통예술학교 입시요강’을 승인했다고 7월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악고등학교는 4명, 전통예술고등학교는 5명, 국악학교는 3명, 전통예술중학교는 2명의 특수교육대상자를 선발한다.

해당 학교들은 장애학생들의

입학을 대비해 학생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전통예술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제도나 시설 등을 개선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비장애인들과 동일한 조건에서 어렵게 입시를 치렀던 장애인 전공자들이 좀 더 수월하고 좋은 조건에서 입시를 치를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 장애인들이 전통예술을 전공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광명다소니 챔버 오케스트라단 전국장애청소년예술제 최우수상 수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구성된 광명다소니예술단 챔버 오케스트라단이 7월 18일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열린 ‘제8회 전국장애청소년예술제’에서 서양악기연주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국장애청소년예술제’는 장애청소년예술 발전을 위해 한국장애인문화협회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행사이다.

광명다소니예술단 챔버 오케스트라단은 이번 예술제에서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나비왈츠’를 연주해 호평을 받았다.

한편 광명다소니예술단 챔버 오케스트라단은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소속으로 지난 2011년 창단된 이래 정기연주회, 말레이시아 아동 돕기 연주회, 저소득 및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연

주회, 장애인식개선음악회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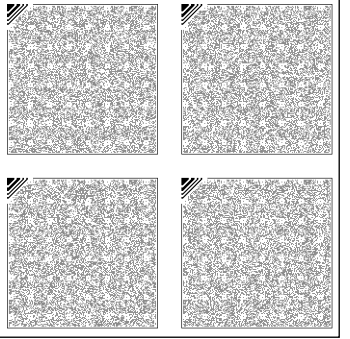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관계자는 “광명다소니예술단 챔버 오케스트라단이 사랑하는 사람을 뜻하는 ‘다소니’라는 말처럼 앞으로도 공연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들과 기쁨과 희망을 나누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광명다소니예술단 챔버 오케스트라단이 연주를 하고 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 인천APG 메달사냥 나선 보치아 콤비

## 정호원 · 김한수 선수 대회 앞두고 각오 다져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하는 보치아 정호원 · 김한수 선수가 보조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림픽 7연패의 힘!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에서도 눈여겨 봐주세요”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둔 보치아 세계랭킹 1위 정호원(28, 속초시장애인체육회), 2위 김한수(22, 경기도장애인보치아연맹) 선수의 각오다.

두 선수는 BC3 2인조에서 함께 호흡을 맞추고 개인전에서도 금메달을 놓고 경쟁을 벌이는 라이벌이다.

2010 광저우장애인아시아경기에서는 김한수 선수가 금메달을, 정호원 선수가 은메달을 땀을 정도로 서로 대등한 실력을 갖췄다.

정호원 선수는 지난 6년 동안 보치아 세계랭킹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정호원 선수의 보조자인 권철현(41) 코치는 정호원 선수의 강

점으로 오랜 경력에서 나오는 안정적 경기력을 꼽았다.

또한 몸을 좌우로 움직일 수 있어 조준할 수 있는 각이 넓고 침착하다는 평가다.

2012 런던장애인올림픽 때는 은메달을 따는 데 그쳐 은퇴까지 고민했을 정도로 선수로서의 자부심도 강하다.

김한수 선수는 언어장애가 있지만 직접 만든 숫자판을 통해 그의 보조자이자 어머니인 윤추자(54) 코치와 소통하며 경기를 한다.

끊임없는 노력과 성실함으로 김한수 선수는 중학교 2학년 때 전국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2010 광저우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지난 2009년부터 BC3 2인조로 호흡을 맞추고 있는 정호원 ·

김한수 선수는 지난 런던패럴림픽에서 부진한 성적으로 랭킹 4위에 머물렀다.

이에 이들은 이번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되찾아 자존심 회복은 물론 대한민국 보치아의 위상을 세계에 떨친다는 각오다.

정호원 선수는 “운동을 할수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며 “이번에 금메달을 목에 걸어 꼭 보답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한수 선수는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선배들을 보며 지금까지 꿈을 키워왔다”며 “정호원 선수와 호흡을 잘 맞춰 아시아 최고,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르겠다”고 다짐했다.

## ‘제8회 전국어울림마라톤대회’ 9월 개최

의정부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김인숙, 이하 의정부장북)이 오는 9월 27일 오전 11시부터 복지관 일대에서 ‘제8회 전국어울림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

‘전국어울림마라톤대회’는 장애 유무,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의정부장북 개관 1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올해 대회에서는 5km(레

이싱부, 생활용휠체어부, 지적장애인부, 청소년중 · 고등부, 비장애인 성인부, 어울림부), 10km(시각장애인부, 장애인 통합부, 비장애인 성인부) 경기가 펼쳐진다.

또한 전야제, 바자회, 장애인문화예술제 등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열린다.

대회 참가 신청은 9월 12일까지 의정부장북(☎031-850-5360)으로 하면 된다.

## 장애인사이클 이도연, 세계대회 2관왕

### 스페인 도로월드컵대회 11km · 48km 우승

장애인사이클의 이도연 선수가 ‘2014 스페인 UCI 장애인사이클 도로월드컵대회’ 2관왕에 올랐다.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스페인 세고비아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이도연 선수는 도로독주 11km 경기에 출전해 17분57초

31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개인도로 48km 경기에서도 1시간7분16초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도연 선수는 2011년 휠체어 육상으로 운동을 처음 시작했지만 핸드사이클의 매력에 매료돼

2013년 종목을 전환, 선수활동 첫 해에 국가대표로 선발된바 있다.

지난 5월에는 ‘2014 이태리 UCI 장애인 사이클 도로월드컵대회’ 개인도로독주 15Km(WH4) 부문에서 26분17초55의 기록으로 1위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 장애인사격, ‘IPC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우승

### ‘2016 리우패럴림픽’ 출전권 11장 획득

한국 장애인사격 대표팀이 세계대회 정상에 올랐다.

대표팀은 7월 18일부터 27일까지 독일 쉐에서 열린 ‘2014 IPC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대표팀은 금메달 10개, 은메달 3개, 동메달 4개를 획득했다. 이

번 대회에서는 청주시청 박진호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다.

박진호 선수는 단체전 금메달 3개, 개인전 금메달 1개 · 동메달 1개를 목에 걸어 4관왕에 올르는 한편 세계신기록 3개, 세계타이기록 1개를 수립했다.

한편 ‘2016 리우패럴림픽’ 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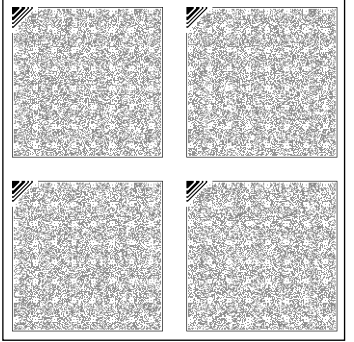
전권이 걸린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가장 많은 11장의 출전권을 획득했다.

우리나라는 내년에 개최되는 ‘2015 IPC 사격월드컵’에서 여자 출전권 1장을 추가로 획득하면 국가별로 최대 12장이 주어지는 패럴림픽 출전권을 모두 확보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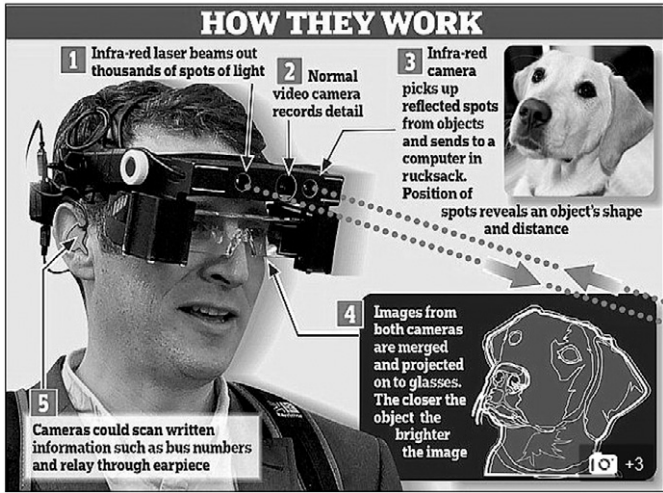
‘2014 IPC 세계사격선수권대회’ R3 10m 공기소총복사 혼성 개인전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

소리로 읽는 새보람



# 오는 2016년 스마트안경 시판

## 손실된 시력 대체...보행 방해 요소 인식



2016년 시판 예정인 스마트안경의 원리. <사진 : DailyMail 캡처>

영국 데일리메일은 스마트 안경이 2016년 시판된다고 8 월 3일 보도했다. 스마트안경은 빛을 인식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저시력자들이 사물을 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품이다.

안경 프레임에 장착된 비디오 카메라가 전방에 있는 사물을 포착하면 내장되어 있는 컴퓨터가 이를 인식해 접안렌즈의 투명 전자 디스플레이로 전송하는 원리다.

전방에 있는 테이블, 의자, 사람 등 보행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훨씬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스마트안경은 옥스퍼드대학교 임상신경과학과와 왕립시각장애인협회가 공동 개발했

다.

연구팀이 2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에서 스마트안경의 효과는 이미 입증된바 있다.

12살에 맥락막 결여증으로 시력이 손상돼 3년 전부터 지팡이가 있어야 보행이 가능한 이안 케인즈(43) 씨는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고 대부분의 사물을 인식했다.

연구팀은 얼굴, 텍스트 인식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어폰을 통한 오디오 기능이 더해지면 착용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구글 자선대회를 통해 마련한 50만 파운드에 100개의 안경을 제작해 1천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스마트안경 개발을 이끌고 있는 옥스퍼드대학교 임상신경과학과 스티븐 힉스 박사는 “스마트안경이 시각장애인이거나 저시력자에게 더 큰 자유와 자신감을 심어 주고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다.

# 의족 착용하고 무대 선 무용수

## 보스턴 마라톤 테러로 다리 절단...1년만에 복귀

### Boston bombing survivor back on dance floor with new leg



의족을 착용하고 무대에 오른 댄스 스포츠 강사 애드리언 해슬릿 데이비스. <사진 : CBSNEWS 캡처>

다리를 잃은 지 1년 만에 의족을 착용하고 다시 무대에 오른 무용수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다.

2013년 보스턴 마라톤대회 폭탄 테러로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은 댄스 스포츠 강사 애드리언 해슬릿 데이비스가 그 주인공이다.

지난 3월과 4월 CBS, ABC 등 외신에 따르면 그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강연 행사 ‘2014 테드’ 무대에 올라 남성 댄서와 라틴팝 가수 엔리케 이글레시아스의 ‘링 마이 벨’에 맞춰 룸바 공연을 선보였다.

이날 그녀는 1982년 등반 사고로 두 다리를 잃고 자신이 직접

개발한 의족을 착용하고 생활해 온 매사추세츠공대 미디어랩 생체공학연구소장인 휴 허 박사가 개발한 인공신체로봇을 착용했다.

휴 허 박사는 그녀의 사연을 듣고 다시 춤을 출 수 있도록 의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그녀의 의족을 만들기 위해 200일 동안 댄스 스포츠 동작에 대해 연구했다.

대부분의 의족은 걷는 동작을 반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만 댄스 스포츠를 하는 그녀의 의족은 더 많은 반복적 동작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녀가 공연을 펼치기 전 강연자로 나서 “댄스 스포츠가 가능한 의족을 만드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사랑하는 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공연을 마친 후 그녀는 “다시 춤을 춰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꿈을 이뤄 행복하다”며 “더 많은 대중들 앞에서 춤을 추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 장애인접근성표지 바꾼 뉴욕주



뉴욕주가 새롭게 채택한 장애인접근성표지. <사진 : The Washington Post 캡처>

미국 뉴욕주가 장애인접근성표지를 교체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7월 29일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지난 1968년 디자인 된 기존 표지가 지나치게 정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제표준으로 통용되고 있기도 한 기존 표지는 장애인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반면 뉴욕주가 이번에 새롭게 채택한 표지에는 휠체어 바퀴를 굴리며 앞으로 나아가는 장애인의 모습이 담

겨있다.

이 표지는 미국의 예술가 사라 헨드런이 디자인했다. 좀 더 역동적인 표지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표지 디자인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국제표준화기구는 지난해 11월 “장애인접근성표지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정적인 장소에 사용되는데 새로운 표지에 담겨있는 장애인의 모습은 패럴림픽 선수를 떠올리게 한다”고 밝힌바 있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포항지원센터

##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합니다

##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주출입구-

여러분은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를 때나 유모차를 끌고 갈 때  
또는 갑자기 갑스를 하게 되었을 때 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편의시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아동, 환자 등  
모든 사람의 평등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하반신 마비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김모(지체 1급) 씨는 따끈한 육개장이 한 그릇 먹고 싶었다.

그러나 주위를 아무리 살펴봐도 전동휠체어로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을 찾기가 힘들었다. 입구에 있는 턱이 문제였다. 몸도 불편한데 남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김 씨는 거리에서 간단한 분식으로 허기를 달래야 했다.

이처럼 장애인들이 음식점을 찾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대부분의 가게 입구에 턱이나 계단이 있어 휠체어를 타고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입식 테이블이 있는지, 경사로가 있는지 등이 음식점 선택에 있어 우선 고려 사항이다.

## 카툰으로 본 장애 차별적 장애인 편의시설



시지프스의 경사로.

‘시지프스의 경사로’는 규정에 맞지 않게 경사가 너무 급하거나 출입문 앞에 활동공간이 없어 휠체어로 오르려고 해도 자꾸만 뒤로 밀리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을 낮추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만약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 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다.



주출입구 전면 계단을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경사로(1/12 이하의 기울기)와 함께 설치한 좋은 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중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lt;개정 2011.9.2&gt;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 12. 경사로

##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1)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다.

## 나. 기울기

- (1)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 (가)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 (나)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 이하로 설치하기가 어려운 것
- (다)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 다. 손잡이

- (1)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2)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3)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라. 재질과 마감

- (1)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2)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 (3)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패트를 부착할 수 있다.

## 마. 기타 시설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설치할 수 있다.

누구나 접근 가능한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물 주출입구의 턱을 낮추거나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금연 음식점이 늘어나는 것처럼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불편 없이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이 확대되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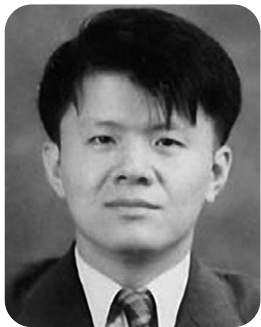


## 노동상담

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장)

## 스트레스 어떻게 푸시나요?

## 건설적인 스트레스 해소법 고민 필요



상담을 하다보면 직장생활로 인한 스트레스로 너무나 힘들어 하는 피상담자를 자주 보게 된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는 스트레스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별반 다르지는 않겠지만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장애로 인한 주변의 편견과 차별이 더해진다.

매스컴에서 직장생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설문조사 한 결과를 보면 보통 1위는 인간관계, 즉 동료·상사·부하직원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설문조사 결과가 아니더라도 직장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 보았을 것이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에 한 상담이 떠오른다. 회계와 경리일을 같이 보고 있던 경증 지체장애인이인 피상담자는 쉬는 날이나 늦은 밤에도 문자 한 통으로 계좌번호와 입금액을 보내주면서 이체하라는 사장님 가족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날이 없었다.

개인적인 계좌이체는 본인들이 하면 될 텐데 인터넷 뱅킹도 모르는지 쉬는 날까지 부러먹는다며 하소연을 했다.

또 전자부품 제조회사에서 부품조립 일을 하는 최 모씨는 같이 근무하는 비장애인 근로자들로부터 왕따를 당했고 수시로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을 듣는 등 인격적인 모독까지 당했다고 했다.

위의 사례를 보더라도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생활은 수많은 스트레스로 가득하리라는 것을 쉽사리 짐작할 수 있다.

작년에 읽었던 「외계인, 회사에 출근하다」(패트리샤 아데스 지음, 윤성

호 옮김/미래의 창)라는 책에서는 보다 만족스럽고 성공적이면서도 스트레스는 적게 받는 직장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맡은 업무를 완수하는 것’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 두 가지만 잘 하면 된다고 했다.

이 중에 첫 번째 업무 완수는 그리 어렵지가 않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장애인 근로자는 업무수행을 위한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작 직장생활을 스트레스로 가득 차게 하고 심지어는 업무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사태를 초래하기도 하는 것은 바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상황들이다.

책에서는 까다로운 상사의 무리한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거나, 상대하기 어려운 동료 또는 고객들을 상대해야 하거나, 사소한 문제에도 이러쿵저러쿵 따지려 드는 부하직원을 다뤄야 하는 등의 일을 예로 들었지만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여기에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어려움이 추가된다.

사실상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특히 직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어차피 스트레스가 삶의 동반자여야 한다면 스트레스에 대해 잘 대처하고 관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의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잠을 잔다’가 39%로 가장 많았고 ‘술을 마신다’가 37%, ‘그냥 참는다’가 30%, ‘담배를 피운다’가 28%, ‘수다를 떠다’가 25%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많은 대처 방법들을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첫 번째 유형은 ‘정면 돌파형’이다. 이 유형은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해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유형으로 직장 내 인간관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해도 갈등의 대상자와 직접 문제를 공유해서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아보거나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해 고치기도 한다.

하지만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는 개인적으로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다

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두 번째 유형은 ‘타협형’으로 스트레스의 근원을 찾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점에서는 ‘정면 돌파형’과 유사하지만 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는다는 차이가 있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을 남들도 알도록 만들고 적절한 타협안을 찾으려 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합리화를 시킨다.

하지만 스스로 자신의 목표를 낮추거나 업무량을 줄이면서 현실에만 안주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

세 번째 유형은 ‘도망자형’으로 스트레스가 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회피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만 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해방될 수만 있다면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포기하기까지도 하는데 이 유형에 해당되는 직원이 있다면 상사는 더 이상 일을 믿고 맡길 수가 없게 된다.

네 번째 유형은 ‘레저형’인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잊어버리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상황을 만들어서 자신의 기분을 즐겁게 하는 식으로 대처한다.

하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잠시 즐겨왔을지 몰라도 월요일에 회사로 출근하면 스트레스 상황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또 다시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말동안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닐 때는 잠시 즐거웠을지 몰라도 월요일에 회사로 출근하면 스트레스 상황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또 다시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이다.

다섯 번째 유형은 ‘투덜이형’인데 스트레스로 인해 자신이 받은 부정적 감정을 외적으로 드러내는 유형이다.

‘레저형’이 직장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감정을 해소하는 반면에 ‘투덜이형’은

주로 동료를 대상으로 해소를 한다.

이 유형은 스트레스로 인해 받은 자신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표출한다는 점에서 정신 건강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해서 표출하기 때문에 동료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마지막 유형인 ‘가슴앓이형’은 스트레스로 인한 감정을 혼자서 모두 삭히는 유형이다. 겉으로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지 않지만 사실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가는 사람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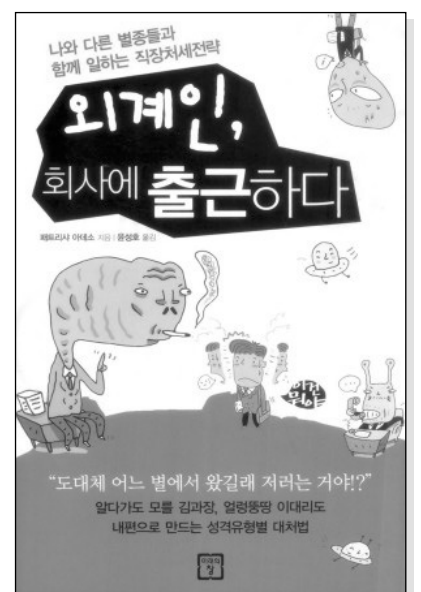
이러한 유형은 가부장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아버지들이나 리더들에게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슴앓이형’은 모든 스트레스를 내적으로 누르고 있어 소위 화병이나 신체적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스트레스는 걱정만 하거나 회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문제를 해결하든 감정을 해소하든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갖고 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스트레스에 대해 막연하게 반응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자신의 스트레스 대처 유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유형의 장단점을 파악한 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법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외계인, 회사에 출근하다」표지. ©미래의창

## 여성장애인 직업탐색 기회 마련

### ‘바리스타·제빵사 체험 프로그램’ 운영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 취업지원센터가 진행한 바리스타 체험.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 취업지원센터가 여성장애인 구직자들에게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했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 취업지원센터는 7월 17일 커피전문 프랜차이즈 ‘루머팡’의 재능기부로 바리스타·제빵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손희순(지적장애 3급) 씨는 “이번 기회를 통해 바리스타라는 직업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앞으로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에 도전해 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 취업지원센터 관계자는 “여성 장애인들이 실제로 다양한 직업을 경험해보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프로그램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여성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해 직업 체험 외에도 다양한 직업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 취업지원센터는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재봉틀을 사용해 옷을 만드는 홈패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공무원 교육에 장애 인식개선 과목 편성

### 한국장애인고용공단·대한지적공사 지적연수원 MOU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대한지적공사 지적연수원은 7월 3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무원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대한지적공사 지적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공무원 수탁 교육에 장애 인식개선 과목이 편성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 소속 1000여명의 공무원, 대한지적공사 임직원들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인 ‘행복한 동행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행복한 동행 프로그램’은 고용 현장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개발한 장애 인식개선 교

육 콘텐츠이다.

지난 2008년부터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여건과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사업주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됐지만 실시 방법이나 제재조치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이 없어 교육이 체계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지원국 김태양 국장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 등 사회문화적 장벽이 없는 고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우선적으로 각 기관 연수원 교육과정에 장애 인식개선 과목을 편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 취업정보

	업종	업 체 명	근무지	연령	성별	근무내용	급여	보험	연락처
1	단순직	인앤드인	서울 강남구	무관	무관	검수직	연봉 257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2	단순직	인앤드인	서울시 중구	무관	무관	식당보조	월 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3	사무직	현대해상	서울 전역	40세 이하	여	사무직	월 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4	경비직	삼우안전관리	서울시 중구	65세 이하	남	경비직	월 135만원	4대보험	02-2289-4322
5	미화직	(주)청인시에스 비즈니스글로벌	서울시 마포구	65세 이하	여	미화직	월 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6	서비스	군포서비스주식회사	경기도 군포시	30세 이하	남	서비스	시급 5210원	4대보험	02-2289-4322
7	경비직	(주)국제안전시스템	서울시 강남구	65세 이하	남	경비직	월 113만원	4대보험	02-2289-4321
8	경비직	대성에프엠	의정부	65세 이하	남	경비직	월 156만원	4대보험	02-2289-4322
9	생산직	가람헤어테크	인천시 계양구	무관	무관	생산직	월 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0	단순직	엘림실업	경기도 구리시	40세 이하	남	단순직	월 9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1	미화직	브랜드인덱스	서울시 강남구	65세 이하	여	미화직	월 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2	생산직	큰집곳간에빵소리	경기도 광주	무관	남	생산직	월 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3	소독직	나라개발시스템	서울시 전역	60세 이하	무관	소독직	월 12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4	미화직	나라개발시스템	서울 강서구	65세 이하	여	미화직	월 86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5	사무직	(주)아리오아웃소싱	서울시 마포구	30세 이하	무관	사무직	월 14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6	생산직	청밀	경기도 용인시	무관	무관	농산물 세척 및 포장	월 130만원	4대보험	02-2289-4322
17	생산직	아이퍼니처	서울시 강동구	60세 이하	남	생산직	월 15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8	미화직	에스엠종합관리	서울시 서초구	60세 이하	무관	미화직	월 13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19	경비직	(주)한얼관리	서울 동작구	65세 이하	남	경비직	월 130만원	4대보험	02-2289-4321

# ‘기부’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원동력

## 남부장복, 장애 어르신 생신상 마련

식당 후원으로 식사대접...선물전달



생신상차려드리기 행사.

충청남도남부장래인종합복지관(관장 임대혁, 이하 남부장복)이 홀로 생일을 보내야 하는 재가 장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생신상차려드리기’ 행사를 마련했다.

남부장복은 7월 24일 공주시 계룡면에 위치한 수정식당(대표 김태순)의 후원을 받아 7~8월 생일을 맞이한 장애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 어르신은 “많은 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정을 느낄 수 있었다”며 “잊지 못할 추억이 됐다”는 소감을 전했다.

‘생신상차려드리기’ 행사 후원 문의는 남부장복 재가복지팀(☎041-856-7071)으로 하면 된다.



후원물품 전달식.

## 전남지장협, 후원물품 전달받아

국제와이즈멘 서해중지방 목포클럽이 지원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협회장 박경철, 이하 전남지장협)가 7월 29일 국제와이즈멘 서해중지방 목포클럽으로부터 후원물품(선풍기 10대)을 전달받았다.

국제와이즈멘 서해중지방 목포클럽 주재갑 사무총장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는 전남지장협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전남지장협 박경철 협회장은 “국제와이즈멘 서해중지방 목포클럽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전국에 17개 시·도 협회와 230개 시·군·구 지회를 두고 있는 비영리 순수 장애인단체입니다.

또한 이 나라 500만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을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각종 교육사업, 장애인예술제 및 중증장애인배우자 초청대회, 장애인자립작업장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대한민국 장애인복지를 선도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장애인복지를 꽃피우고 이들이 다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으로 확신하며 ‘사랑 나눔 운동’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 ■ 회원구분

일반회원1 (2천원/월)	일반회원2 (5천원/월)	일반회원3 (1만원/월)
특별회원1 (3만원/월)	특별회원2 (5만원/월)	특별회원3 (10만원/월)
단체회원 (연 20만원이상)	기금회원	물품회원

### ■ 후원금 납부방법

- 자동이체, CMS
- 후원계좌 : 국민 822-01-0136-451  
농협 033-01-174991
- ※ 후원금은 연말에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후원신청

- ① 전화신청 : ☎02)796-4280
- ② 홈페이지 신청  
협회 홈페이지(<http://www.kappd.or.kr>) 접속 - 나눔마당 - 후원신청

### ■ 2014년 7월 후원자 명단(가나다 순)

강성희, 김경숙, 김경아, 김경희, 김광배, 김광환, 김구환, 김동수, 김성운, 김수곤, 김순덕, 김영미, 김영진, 김인수, 김인순, 김정기, 김정태, 김정훈, 김정희, 김준곤, 김진호, 김창곤, 김천장애인종합복지관, 김형욱, 김환경, 나금숙, 문민숙, 박규도, 박영심, 박종순, 박종형, 박현순, 반형만, 방순임, 배태환, 사)한국뇌성마비복지회, 서동녀, 선병욱, 아워홈, 안병현, 오희경, 우지현, 원명자, 원종빈, 유재복, 유종표, 육근록, 윤채환, 이남호, 이순영, 이용란, 이은정, 이태훈, 임채중, 장교선, 장추자, 정선용, 조기현, 조남희, 주명희, 주승운, 주영래, 진미라, 최병철, 최선영, 하정미, 한국마사회, 황보훈, 황정연, IBK경동지역.  
(후원자님이 후원해 주신 후원금은 500만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 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날말맞추기

CROSSWORD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응모  
요령

‘★’에 있는 말로 단어를 조합해 우편엽서에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로열쇠 |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의 줄임말.
- 은혜를 입음. 또는 혜택을 받음.
- 돈이나 물품 따위를 지나치게 많이 써서 없애는 일.
-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민족 혈통을 가진 중국 국적의 주민들.
- 전선을 철탑 또는 전봇대의 어깨쇠에 고정시키고 절연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지물.
- 고구려를 건국한 시조. 동명성왕.
- 국가가 법률에 의해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해 일정한 기간 군대에 복무하게 하는 강제적 병역제도.
- 한 부분만의 합계.
- 등나무 줄기로 만든 가구.
- 어떤 분야에 전문적 기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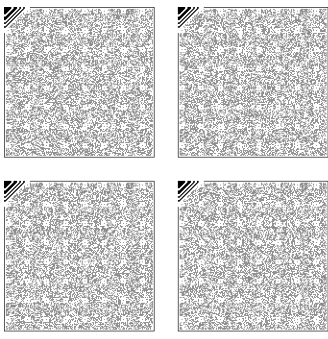
가진 사람.

- 여자가 친척 아닌 남자를 일컫는 말.
- 국면이 급하게 전개됨. 또는 그런 전개.

| 세로열쇠 |

- 눈에 관계된 질환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의학.
- 갖추어 차림. 또는 그 장치와 설비.
- 힘을 보태어 도와주는 사람.
- 어린이의 손바닥·발바닥·입안 등에 발진이 생기고 열이 나는 병.
- 대우주와 대응되는 형이상학적 개념.
- 범죄의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해 그 수사와 범인의 기소를 요구하는 일.
- 실현성이 없는 헛된 생각을

소리로 읽는 새보람



즐겨 하는 사람.

- 남을 장례에 참가도록 하기 위해 제재를 가함.
- 우리나라 가장 남쪽에 있던 섬으로 2006년에 ‘특별자치도’로 승격했다.
- 구기자나무의 열매. 해열제와 강장제로 쓴다.
- 어떤 무리에서 기피해 따돌리거나 멀리함.
- 자기에게 필요한 물자를 스스로 마련해 충당함.

정답  
힌트

장애의 정도에 따라 교육, 의료 등을 지원하고자 등급을 매긴 것.

7월호 정답

척수

당첨  
자

황진혁 강원 춘천시 석사동  
 장지호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이은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다른 그림 찾기

DIFFERENT SEARCH

두 사진에는 3곳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산시장애인복지관 농구팀 선수들과 서울 성민복지관 농구팀 선수들이 8월 13일 교류전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응모요령 : 2장의 사진 중 아래의 사진에 서로 다른 부분을 표시하고(2개 이상) 절취한 후, 우편엽서 뒷면에 붙여서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 이룸센터 3층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외협력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달 정답자 세 분에게는 가브리엘 천연공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천연비누’를 상품으로 보내드립니다.



가브리엘 천연공방의 ‘천연비누’

천연화장품 & 천연비누



당신의 피부...  
 피부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연을 생각하는 아인미의 모든 원료는 화학원료가 아닌, 자연 속의 식물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일과 천연광물, 천연색소와 화장품 원료 기준에 적합하고 검증된 원료들로만 만들어진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자연의 힘으로 스트레스와 유해물질들로 지치고 손상된 당신의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인미 비누는, 천연비누업계 최초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인증 및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인증 받은 제품을 취급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기념품, 답례품



천연화장품



천연비누



천연물클렌징



천연바디워시

천연주방세제

※가브리엘 천연공방 수익금은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해 쓰여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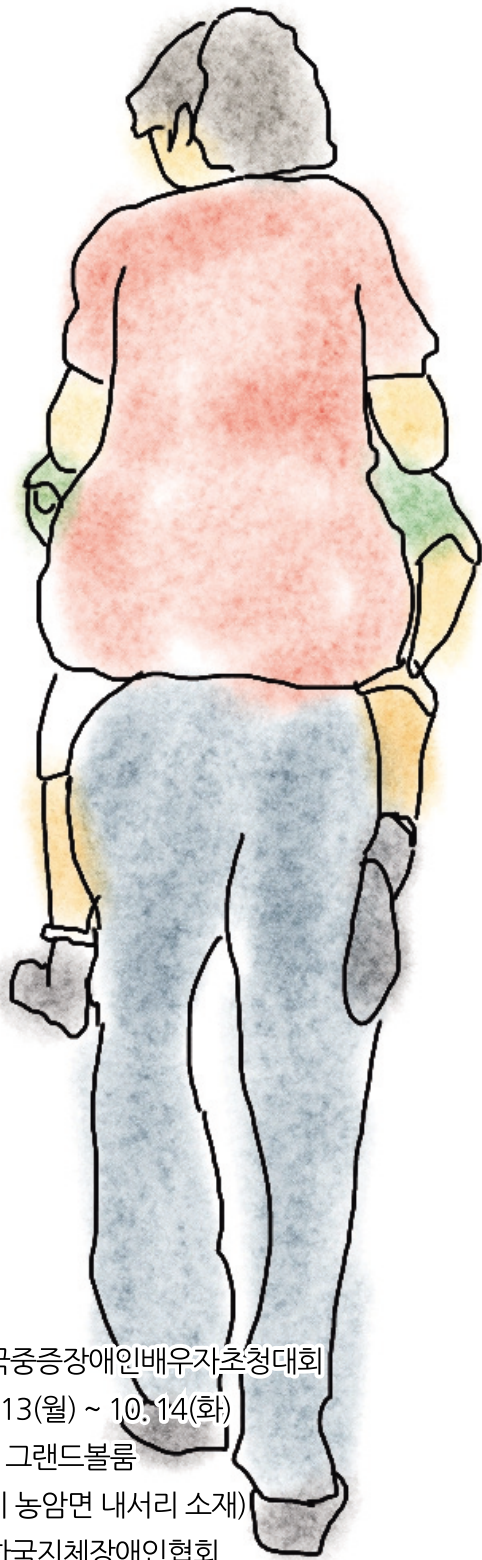
■문의  
 Tel. 930-0783 Fax. 930-0784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021-21  
 http:// www.gabrielcenter.or.kr

# 2014

##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2014 MPSD  
The National Meeting  
for Life Partners  
of Persons  
with Severely Disabilities



“ 이 가 이 나 그  
전 제 족 령 는 너  
국 제 이 게 고 는  
중 너 의 되 우 너 나  
증 의 소 있 리 는 의  
장 손 습 님  
애 을 니  
인 잡 다  
배 고  
우 감  
자 니  
초 다  
청  
대  
회  
”

이 령 는 너  
게 우 리 는 발 이 되 어 주  
로 를 기 대 었 습 니  
다 다 다 다 다

### □ 개 요

- 행사명 : 2014 전국중증장애인배우자초청대회
- 일 정 : 2014. 10. 13(월) ~ 10. 14(화)
- 장 소 : STX리조트 그랜드볼룸  
(경북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소재)
- 주 최 :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후 원 :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KBS(예정)
- 인 원 : 200여명
  - 중증장애인 부부 : 전국의 장애인 및 배우자 100명(50쌍)
  - 격려를 위한 참석자 : 지역장애인 대표자 (20명)
  - 대회임원 및 초청내빈 (30명)
  - 자원봉사자 및 기타 관계자 (50명)
- 접수 : 9.4.(목)까지 거주 지역 지회 및 시도협회 접수
- 문 의 : 02-2289-4370(담당자 박미현)

### □ 대회 초청 대상자 선정방법

- 1~3급의 장애인 배우자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중증장애인)로서,
  - 결혼생활이 만 3년이상 경과한 장애인 부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추천인의 추천을 받은 자
    - ①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 추천을 받은 자
    - ② 한국지체장애인협회 17개 시도협회장 및 230개 시·군·구 지회장(시설장)
    - ③ 전국 17개 시·도지사 및 230개 시·군·구청장 (해당 시·군·구청 복지관련 담당 공무원도 추천 가능)
    - ④ 장애인단체 및 각급 시민·사회단체의 장
    - ⑤ 기타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및 인사 등